

研究論文

계미(1763)통신사행의 화원(畵員) 활동 연구

정은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지식정보센터 연구원, 미술사학 전공
jeje387@hanmail.net

I. 머리말

II. 계미통신사행의 배경

III. 계미통신사행의 화원 활동과 작품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 대외관계에서 화원은 중국에 파견한 부경사행(赴京使行)과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행(通信使行)의 정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하였다. 부경사로 파견된 화원은 도화서 화원 중 그림 재능을 인정받아 오래 근속한 서반체아직(西班牙兒職)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¹⁾ 그러나 화원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지도와 새로운 문물을 모사하거나 부경사행의 노정이나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이 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통신사의 수행 화원은 그림을 잘 그리는 이를 추천하여 파견하였다.²⁾ 노정의 번주들을 비롯하여 예도의 관백 앞에서 그림을 그려 포상을 받았으며, 조선을 통해 중원문화를 전수받으려는 일본인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인해 일본의 문인들이나 화가들과도 직·간접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따라서 부경사행의 화원에 비해 그 활동 범위도 상대적으로 넓었다.³⁾

계미통신사행은 그 어느 때보다 교류 일본인들의 창화 문집이 많이 남아 있어 당시 양국 간 문화교류가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⁴⁾ 화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행화원 김유성(金有聲, 1725-1775 이후)도 일본 화단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음을 현존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1763년 계미사행의 화원활동에 대한 연구는 한일 양국의 학계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수행화원 김유성의 일본에서 교류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거나 기무라 겐카도(木村蒹葭堂, 1736-1802)와 이케노 다이가(池大雅, 1723-1776)의 문인화를 연구하면서 김유성과의 관계

1) 조선시대 부경사행에서 화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은주, 「연행 및 칙사영접에서 화원의 역할」, 『명청사연구』(명청사학회, 2008), 1-36쪽 참조.

2) 『증정교린지』 권5, 「통신사행」.

3) 통신사 수행화원에 대한 연구는 홍선표,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파견과 역할」, 『미술사학연구』 205(한국미술사학회, 1995); 홍선표,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회화활동」, 『미술사논단』 6(한국미술연구소, 1998) 참조.

4) 高橋昌彦, 「朝鮮通信使唱和集目錄稿(二)」, 『福岡大學研究部論集』 6/8(福岡大學研究推進部, 2007), 17-35쪽.

를 언급하였으며, 동래에서 활동한 변박의 대일교류 활동과 작품을 소개한 논문이 있다.⁵⁾ 이들 선행 연구는 계미통신사행에서 양국 간 문화적 교류로서 화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발전시켜 당시 통신사절의 기록 및 일본에서 교유 문인들의 문집, 그리고 현존 작품을 통해 1763년 계미통신사행에서 화원 김유성과 일본 남화의 대가 이케노 다이가와의 교유 상황과 그들 작품에서 보이는 영향관계를 파악하려 한다. 특히 이케노 다이가가 그린 조선통신사행렬도와 김유성에게 보낸 서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자의 구체적인 교유관계를 밝힐 것이다. 18세기 한일 양국에서 김유성과 이케노 다이가의 화단에서 위치를 고려할 때, 개인적인 교유를 넘어 한일 회화 교류사의 흐름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미통신사행의 수행화원 김유성 외에도 정사 조엄이 발탁하여 동행한 별화원(別畵員) 변박의 작품을 분석하고, 변박과 동일인으로 간주되거나 함께 언급되어온 변탁에 대한 일본 사료를 분석하여 이들 상호 관계를 규명하려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계미통신사행에서 화원들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고찰하여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파악하려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미통신사행에서 문화 전파의 한축인 화원들의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계미통신사행의 배경

제11차 조선통신사는 1761년 6월 제9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시게(徳川家重, 1712-1761)의 서거 이후⁶⁾, 1763년 도쿠가와 이에하루(徳川家治,

5) 郷司泰仁, 「寶曆度朝鮮通信使の畵員金有聲について」, 『靑丘學術論集』 23(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2003); 吉田宏志, 「朝鮮通信使に隨行して來日した畵員, 金有聲について」, 『朝鮮通信使展: 江戸時代の善隣友好』(常葉美術館, 2004); 서윤정, 「1764년 通信使의 繪畵活動과 그 交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박윤희, 「이케노 다이가의 문인화에 대한 이해와 실제」, 『미술사학연구』 255(한국미술사학회, 2007); 김영남, 「기무라 겐카도(木村兼葭堂, 1736-1802)의 繪畵 研究」, 『미술사학』 21(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7); 김동철, 「왜관도를 그린 변박의 대일교류 활동과 작품들」, 『한일관계사연구』 19(한일관계사학회, 2003).

6) 1762년 1월 쓰시마에서 조선의 大弔譯官을 통해 순부한 信使講定案은 조선통신사행에 대해 문필과 서화에 능한 사람과 예술인을 엄선하여 보내줄 것을 비롯하여, 헌상 매의

1737-1786)의 제10대 쇼군의 관백(關白) 승습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정사 조엄(趙巖, 1719-1777), 부사 이인배(李仁培, 1716-1774), 종사관 김상익(金相翊, 1721-1781) 이하 격군 228명을 비롯하여 세 사신 행차의 원역(員役)까지 총 477명의 규모였다.⁷⁾ 일행은 1763년 8월 3일 발행하여 10월 6일 부산에서 배를 출발하였고, 1764년 1월 21일 오사카에 입항하였다. 오사카에서 106명을 잔류시키고, 교토를 경유하여 2월 16일 에도에 입성하였다. 이후 3월 11일 회정하여 7월 8일 경희궁에서 복명하기까지 총 332일로 약 11개월이 소요되었다. 노정은 수로와 육로를 합하여 5,735리로 왕복 1만 1470리를 이동하였다.⁸⁾

게미통신사가 파견된 18세기 중기 에도사회는 막번체제(幕藩體制)의 제 모순이 출현하기 직전으로,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1684-1751)의 향보개혁(享保改革)의 실패와 1751년 그의 사후 막부 관료와 다이묘에 대한 쇼군의 지도력 약화로 천황중심제가 점차 대두되기 시작하였다.⁹⁾ 따라서 조선 국왕과 막부 쇼군 사이에 유지되던 교린관계도 천황과 쇼군의 모호한 관계로 인해 그 근본이 흔들릴 가능성이 잠재해 있었다.

정사 조엄은 막번체제의 동요와 천황중심주의가 대두하던 당시 예민한

빈번한 도중 병폐를 이유로 정수 외에 추가로 보내줄 것과 鷹殿를 숙지하는 두 명을 동행시킬 것, 헌상마는 엄선하여 보낼 것, 마상제는 대군여람 때 말이 발병할 염려가 있고, 長州에서 1필의 말이 병사한 예가 있기 때문에 3필로 할 것, 행중 긴급 시를 대비하여 일본어와 물정에 밝은 통사를 보낼 것, 船行은 일본에서 알려준 대로 따를 것, 水陸行 중에 불을 금할 것 등이었다. 仲尾宏, 『寶曆度通信使とその時代』, 『大系 朝鮮通信使』(明石書店, 1994), 98-99쪽.

7) 애초에는 정사 徐命膺, 부사 趙璘, 종사관 李得培를 삼사로 차정하였으나, 사행에 임박하여 교체되었다. 정사 조엄은 1756년에서 1757년까지 부산왜관을 관장하는 동래부사로 재임하였고, 1757년에는 대일외교의 지방 책임자격인 경상감사에 올라 1759년까지 재임하였다. 만 3년에 걸친 경력으로 조엄은 일본관을 구축하는 기반을 닦았다. 金義煥, 『趙巖이 본 18世紀 後半期の 日本社會와 朝日關係』, 『玄岩 申國柱博士華甲紀念 韓國學論叢』(동국대학교출판부, 1985), 173-216쪽.

8) 조엄, 『해사일기』, 三使一行錄; 路程記(『國譯)海行摠載』 V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569-575쪽).

9) 천황중심제의 대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1758년 호우레키사건(寶曆事件)과 1767-1768년 메이와사건(明和事件)이다. 寶曆事件은 1758년 桃園天皇(1741-1762) 시기 교토에서 다케우치 시키부(竹内式部, 후지이 우몬(藤井右門) 등이 朝勸回復을 내세워 家塾에게 『日本書紀』·『保建大記』·『靖獻遺言』 등을 진강하고, 公卿에게 천황을 받들고 막부를 타도해야 한다는 이른바 尊王斥霸 사상을 선동한 사건이다. 한편 메이와 사건은 유학자 야마가타 다이니(山縣大式)가 막부체제를 陪臣專權으로 간주한 『柳子新論』을 집필함과 동시에 에도의 고마고메(駒込)에 서당을 개설하여 존왕척폐 사상을 선동하여 反幕府 운동의 단서가 되었다. 仲尾宏, 『寶曆度通信使とその時代』, 『大系 朝鮮通信使』(明石書店, 1994), 94-95쪽; 박진한, 『享保・寛政改革期 江戸幕府의 검약정책』, 『동방학지』 131(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225-240쪽.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관백이 새로 즉위한 후 조선통신사를 청하는 것은 대개 남의 힘을 빌려 군중의 마음을 진압하려 함이라 지적하였다. 조선에서 부득이하게 교린관계를 유지한다면 왜황(倭皇)과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 하며,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인 관백과 그 예의를 동등하게 하는 것은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¹⁰⁾ 이는 일찍이 이익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조선 국왕과 일본의 막부 장군인 관백이 대등한 예를 취하는 것이 교린관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여, 만약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막부 장군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교린관계도 위기가 닥칠 것이라 예견한 것과 맥이 닿아 있어 주목된다.¹¹⁾

계미통신사행은 에도까지 왕래한 마지막 사행으로¹²⁾, 당시 일본의 외교 의전에 대한 해이는 여러 가지 징후로 나타났다. 1763년 12월 3일 아이노시마(藍島)에서 부사가 탄 배가 난파당하여 예단 불물이 쫓겨나 유실되었고, 1764년 2월 3일 사도가와(佐渡川)에서 행렬이 지날 때 조선 국왕의 국서(國書)를 실은 용정 앞에 말을 타고 지나간 왜인이 있을 정도로 의전은 엄격하지 못하였다.¹³⁾ 또한 2월 27일 전명의식(傳命儀式)에서 관백과의 배례 이후 도쿠가와 친번(德川親藩)과 어삼경(御三卿)의 향응은 약식으로 진행되었다.¹⁴⁾ 당시 흔들리던 교린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4월 7일 오사카의 북어당(北御堂)에서 도훈도 최천종(崔天宗)이 쓰시마의 전어관(傳語官)인 스즈키 텐조(鈴木傳藏)에게 살해당한 참사였다.¹⁵⁾

10) 趙曦, 『海槎日記』 4, 갑신년 2월 27일(『(國譯)海行摠載』 V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212-214쪽).

11) 하우봉,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 研究』(一志社, 1989), 95-96쪽.

12) 총 12차에 걸친 통신사행 중 제11차 통신사행까지는 에도에서 국서가 교환되었고, 1811년 제12차 통신사행에서는 쓰시마에서 국서가 교환되었다. 이후 조선 조정에서 통신사의 공식적 파견은 없었지만, 역관들의 쓰시마 왕래는 1876년까지 지속되었다. 강재언 저, 이규수 역, 『조선통신사의 일본건문록』(한길사, 2002), 297-301쪽.

13) 조엄, 『해사일기』 2, 계미년 12월 3일; 『해사일기』 4, 갑신년 2월 3일(『(國譯)海行摠載』 V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100-103쪽, 167-168쪽).

14) 關白과의 배례와 향응은 본래 德川親藩의 오와리(尾張), 기이(紀伊), 미토(水戸) 御三家가 참여하였으나, 계미통신사의 국서전명 의식에는 尾張家は 나오지 않고 紀伊州太守 中納言源宗將과 水戸州太守 源宗翰 두 명이 참여하였다. 조엄, 『해사일기』 4, 갑신년 2월 27일(『(國譯)海行摠載』 V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210쪽).

15) 조엄, 『해사일기』 5, 갑신년 4월 7일(『(國譯)海行摠載』 V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243-247쪽); 최천종의 죽음 외에도 당시 통신사행에서 삼방수역통인 金漢仲, 복신장 俞進源, 격군 李光河가 사망하였다.

오사카에서 최천중 살해사건 이후 최고조에 달한 일본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조엄 일행은 일본 지도와 나고야의 주교(舟橋), 요도우라(淀浦)의 수차(水車) 원리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여 모사하도록 하는 등 일본의 왜학이나 서학에 대해서는 이용후생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1763년 10월 10일에 실용적 입장에서 대마도 지도와 새로 인쇄된 일본 지도를 구득하여 모사하게 하였다. 한편 1764년 1월 27일 오사카를 출발하여 요도가와(淀川)를 건너 육로로 교토에 들어갈 때 조엄은 성 밖에 수차 2대가 돌아가면서 물을 펴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큰 관심을 쏟았다. 조엄은 1764년 2월 3일 나고야로 들어갈 때 사도가와를 비롯하여 와카이가와(境川), 요코가와(起川) 세 하천에 걸쳐 있는 주교를 상세히 관찰하였다.¹⁶⁾ 이후 6월 18일 사스나(左須奈)에 도착하여 구황작물인 고구마의 종자를 얻어 재배저장법을 습득하여 돌아왔다.¹⁷⁾ 근대서양문물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조엄이 본 18세기 후반 일본사회는 주자학적 우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조선과 달리 이미 서양문물의 수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¹⁸⁾

그러나 당시 일본 문인들은 시축 창화, 병풍과 필법 등에서 독특한 개성이 있었음에도 우열을 가리지 않고 통신사 일행의 필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¹⁹⁾ 사자관뿐만 아니라, 일행 중 글씨 쓸 줄 아는 이는 간절한 요청에 견디기가 어려웠으며, 심지어는 배를 탄 뒤에도 글씨를 애걸하거나 조선인들의 필적을 간직하면 많은 복리가 있다고 간주하여 중간에서 소개하는 쓰시마 통역들이 뇌물까지 받는 상황에 이를 정도였다.²⁰⁾ 이렇듯 과도한 조선 서화 구청 열기는 일본 민간에서 객인신앙(客人信仰) 및 남녀 결혼, 병을 치료하거나 순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벽사적 요구와 결부되어 재소복래(災消福來)의 목적이 컸다.²¹⁾

16) 조엄, 『해사일기』 4, 갑신년 2월 3일(『國譯』海行摠載』 V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168쪽).

17) 조엄, 『해사일기』 5, 갑신년 6월 18일(『國譯』海行摠載』 V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311-312쪽).

18) 金義煥, 「趙嚴이 본 18世紀 後半期の 日本社會와 朝日關係」, 『玄岩 申國柱博士華甲紀念 韓國學論叢』(동국대학교출판부, 1985), 173-216쪽.

19) 일본 학자들과 필담창화를 담당한 인물은 제술관 南玉, 서기 成大中・元重舉・金仁謙으로, 특히 元重舉의 경우 3-4개월 동안 1천여 명의 일본 문인을 접촉하여 2천여 편의 창화에 응할 정도였다.

20) 조엄, 『해사일기』 2, 갑신년 1월 11일(『國譯』海行摠載』 V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137-138쪽).

21) 홍선표, 「에도시대의 조선화 열기-일본통신사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8(이화

일본 문인들 사이에서 조선 서화는 중화문물을 접할 수 있는 당회(唐繪)로 간주되었는데, 남옥은 건문이 있는 일본인들의 경우 조선 사자관의 글씨를 인판체(印版體), 화원의 그림을 병풍체(屏風體)라 하여 사자관과 화원의 서화가 일본에서 평가절하되는 것을 우려하였다.²²⁾ 일본 현지에서 요구되는 과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원과 화원이 다작을 해야 했던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III. 계미통신사행의 화원 활동과 작품

1. 화원 김유성의 활동과 이케노 다이가와의 교류

조엄은 조선 조정에서 통신사로 파견하는 원역 중 사자관·화원·별파진(別破陣)·마상재·전악(典樂)·이마(理馬)를 데려간 이유를 어떤 종류의 기예라도 일본에 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밝혔다.²³⁾ 따라서 통신사행의 화원 역시 일본에 조선 문화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사절의 한 사람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유성은 도화서 화원으로 1757년 어용 중수에 주관화사 장경주(張敬周)를 도와 수중화사로 활약하였다. 그해 10월 9일 정3품 충익위장의 직책에서 평소 앓던 담병(痰病)이 심해져 교체된 후, 10월 28일 문성첨사(文城僉使)에 제수되었다. 1758년 4월에는 충장장(忠壯將)이 되었으며, 1760년에 모친상을 당하기 전까지 도화서 사과(司果)로 녹봉을 받았다. 1763년 통신사행 이후 1768년 도화서 별제아 자리에 있다가 탈이 있어 체차되었고, 1775년 위도첨사(蝟島僉使)에 제수되었다.²⁴⁾

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5), 141-145쪽.

22) 남옥, 『일관기』 권10, 서화(남옥 저, 김보경 역, 『日觀記-붓끝으로 부सान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2006, 583-584쪽).

23) 조엄, 『해사일기』 1, 계미년 8월 3일(『國譯海行摠載』 V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25-26쪽).

24) 『승정원일기』 1148책, 영조 33년 9월 경인(1일); 『승정원일기』 1149책, 영조 33년 10월 신유(2일); 영조 33년 10월 무진(9일); 영조 33년 10월 경해(28일); 『승정원일기』 1155책, 영조 34년 4월 정묘(12일); 『승정원일기』 1182책, 영조 36년 6월 정묘(25일); 『승정원일기』 1286책, 영조 44년 11월 3일조; 『승정원일기』 1364책, 영조 51년 6월 병신(20일)조.



그림1-『한객인상필화』 화원 김유성, 1764년, 25.1×17.2cm, 국립중앙도서관

화한 『한객인상필화(韓客人相筆話)』에서 그의 신상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²⁶⁾

김유성의 자는 중옥, 호는 서암, 나이 40세이다. 다메미쓰가 그에게 말하길, “골격이 풍만하고 마디가 청수하며, 귀의 색깔은 밝고 윤기가 있어 부귀하고 이름을 높일 상이다. 다만 나이에 어두운 기운이 있어 반드시 병환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서암이 말하길, “과연 지금 병환이 있다.” 또한 “언제 부귀를 얻고 언제 아들을 낳겠는가?” 물었다.

다메미쓰가 말하길, “44세와 45세 때 기색이 열리면 길해질 것이다. 만약 부귀를 얻지 못하면, 훌륭한 아들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다.²⁷⁾

김유성의 본관은 김해, 자는 중옥(仲玉), 호는 서암(西巖)이다. 사행 당시 그의 나이는 40세로 몸이 건강하지 못하였고, 슬하에 아들이 없었던 모양이다. 이는 앞서 1757년 기록에서 평소 담증을 앓고 있었다고 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한객인상필화』의 김유성 초상은 다이호의 문인 중 에도 출신의 아베마키 마토(椿馬東)가 그린 것으로, 위에서 다메미쓰가

25) 남옥, 『일관기』 권1, 좌목(남옥 저, 김보경 역, 앞의 책, 47쪽); 수행화원이 제8차에 해당하는 1719년 통신사행부터 一房에 소속되어 正使船에 승선하였다. 홍선표, 앞의 논문(한국미술연구소, 1998), 187쪽.

26) 니야마 다이호(新山退甫, 1722-1775)는 에도 중기 관상가로 仙台藩의 佐藤常香의 아들이다. 이름은 退, 자는 退甫, 호는 六足翁, 天橋齋主人이다. 江戶로 옮겨 성을 新山으로 바꾸었으며, 京都를 거쳐 大坂에 머물렀다. 골상학에 능하여 이름을 날렸다.

27) 新山退甫, 『韓客人相筆話』, 金有聲 字仲玉, 號西巖, 四十齡. 爲光相之曰, 骨格豐滿, 眉目清秀, 耳色明潤, 主富貴名譽, 但年壽相生暗氣必發病患. 西巖曰, 果今有病患, 又曰何年得富貴, 何年出子乎. 爲光曰, 四十四, 五之際 得一開色則吉也, 若不得富貴則或可生好男也.

말한 것처럼 풍체가 좋고 왼손에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그림1).²⁸⁾

김유성은 정3품까지 오른 화원임에도 사행 전후 도화서에서 활동은 뚜렷하지 않다. 의궤 제작에 차출되거나 참여한 기록도 없으며, 화원가문을 형성한 내력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현존하는 그의 작품은 계미사행의 수행화원으로 활동했던 1763년과 1764년에 집중되어 있다.

정사가 관할하는 일방 소속이었던 김유성은 대개 조엄의 요구에 응하여 대외적인 회사(繪事)를 수행하였다. 1763년 11월 4일 쓰시마 세이잔지(西山寺)에서 머물 때, 조엄은 쓰시마 도주가 관례로 서화와 마상재를 보내주길 청하자 사자관, 마상재와 더불어 화원 김유성을 부중(府中)에 보내 시제에 응하도록 하였다.²⁹⁾ 12월 21일에는 아이노시마에서 왜선 수백 척이 돛을 달고 지나는 낙조의 진경을 김유성에게 그리도록 하였다.³⁰⁾



그림2-「대일본총도」 목판채색, 76.3×122cm, 가나가와 현립역사박물관

한편 조엄은 1764년 1월 24일 오사카에서 일본 지도 개정본(改正本)을 얻어 김유성에게 그리게 하였다.³¹⁾ 당시 김유성이 그리려 했던 일본

28) 松阪에 있는 眞臺寺에는 樅馬東이 주지 赤須真人(1716-1788)을 그린 「赤須真人壽像」이 남아 있어 그가 인물화에 능했음을 알 수 있다.

29) 조엄, 『해사일기』 2, 계미년 11월 4일(『(國譯)海行摠載』 V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73쪽); 쓰시마 도주가 수행화원과 사자관을 청하여 시제를 행한 것은 병자사행부터였으며, 1655년 을미사행부터 쓰시마 府中에서 舊例의 명목으로 지속되었다. 홍선표, 앞의 논문, 188쪽.

30) 조엄, 『해사일기』 2, 계미년 12월 21일(『(國譯)海行摠載』 V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120쪽).

전도는 서기 성대중이 구해 온 일본 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성대중이 가져온 지도는 「대일본총도」로, 마부치 지코안(馬淵自藁庵)이 그리고 오가타 지세이켄(岡田自省軒)이 지지를 기록한 목판본이다(그림2).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각국도』의 「일본전도」 중 성대중이 가져온 것을 모사했다는 지도가 바로 목판본 「대일본총도」를 그대로 필사하여 옮긴 것이다.

그 밖에 김유성은 일본에서 많은 문인, 화가와 교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사와 동행한 유학자 나와 로도(那波魯堂, 1727-1789)에 의하면, 각지에서 김유성의 그림을 구하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기무라 겐카도는 1764년 3월 오사카에서 통신사 일행과의 전별연에서 『서지첩(栖志帖)』을 받았는데, 김유성의 그림과 성대중의 시가 함께 조화를 이룬 시화합벽첩이다.³²⁾ 『겸가당서목(兼葭堂書目)』에 ‘조선서암산수 일첩(朝鮮西巖山水一帖)’으로 기록된 작품이 바로 『서지첩』일 것으로 추정된다(그림3). 기무라 겐카도는 조선통신사가 돌아간 후 『겸가당갑신고(兼葭堂甲申稿)』를 엮었는데, 화원 김유성에 대해 “조선의 김 화사는 솜씨가 뛰어나 장유할 때, 춘운을 그려내면 산천의 기이함을 뽑아내었는데, 이는



그림-3. 김유성, 『서지첩』 1764년, 24.3×21.0cm, 개인

31) 조엄, 『해사일기』 3, 갑신년 1월 24일(『(國譯)海行摠載』 V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155쪽).

32) 『栖志帖』은 도쿄 대학의 坂倉聖哲 교수가 홍선표 교수에 문의함으로써 학계에 그 존재

붓끝을 벗어난 흥임을 알겠네”라고 하여 사경을 벗어나 신묘한 화경을 그려내는 그의 사의적 작풍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³³⁾

1764년 2월 29일 에도에서 청나라 출신 화가 와타나베 겐타이(渡邊玄對, 渡邊瑛, 1749-1822)가³⁴⁾ 김유성 일행을 방문하여 꽃 속에 까치가 노니는 채색화조화를 예물로 전달하기도 하였다.³⁵⁾ 와타나베 겐타이는 당시 나이 16세로 김유성과도 접촉하였으며, 김유성은 그를 위해 산수화를 그려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유성의 산수화를 목판으로 모각하여 간행한 『모각김유성산수판화(模刻金有聲山水版畵)』내의 「산수도」에는 “갑신모춘조선서암사 일본변영사(甲申暮春朝鮮西岩爲[寫]日本邊瑛寫) [仲玉][金有聲印]”이라는 관지가 있다(그림4). 이처럼 김유성의 산수화가 판화집으로 간행되어 와타나베 겐타이를 비롯한 일본 화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성은 1764년 2월 22일경 아사쿠사 혼간지(淺草 本願寺)에서 대학두(大學頭) 하야시 노부유키(林信言, 1721-1774)와 국서두(圖書頭) 하야시 노부요시(林信愛, 1744-1771) 부자와 창화하였다. 『한객창화(韓客唱和)』에 의하면 노부유키는 1748년 이성린과 만나 그림을 받았으며, 1764년에도 김유성으로부터 회화 여러 폭을 받고 시와 선묵(扇墨)으로 답례하였다. 노부유키는 산수화가로서 김유성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노부요시는 김유성의 인물화를 당나라 주방(周防), 말 그림을 송나라 이공린(李公麟)에 비유하였다.

이노우에 시메이(井上四明, 1730-1819)와 창화는 『사객평수집(客寄萍水集)』 권3에 보인다. 1764년 1월 14일 우시마도 객관(牛窓客館)에서 만난 시메이는 김유성의 산수화를 당나라 오도자(吳道子)에 비유하였다. 또한 교토 객관인 혼코쿠지(本國寺)와 오사카 객관에서 유학자 오에 수게히라(大江資衡, 1729-1794)와의 필담은 『문패집(問佩集)』에 수록되

가 알려졌다. 이 시화첩에 쓴 那波魯堂(1727-1789)의 발문을 통해 제술관 남옥, 서기관 원중거·성대중·김인겸과 시화를 수창하였으며, 서화는 사자관 홍성원·이언우·화원·김유성이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김영남, 앞의 논문, 127-128쪽.

33) “八道三韓金畫師 化工堪奪壯遊時 春雲描出山川異 此去毫端興可知.” 木村兼葭堂, 『兼葭堂甲申稿』, 「奉呈畫員金仲玉」. 김영남, 앞의 논문, 141쪽 원문 재인용.

34) 渡邊瑛의 본성은 内田이며, 에도인이다. 자는 延輝, 호는 玄對山人, 玄對居士, 林麓草堂, 松堂, 醉愚, 泉石庵이라 하였다. 渡邊湊水の 양자가 된 후 그림을 배웠다. 산수 및 화조화를 잘 그렸으며, 谷文晁의 스승이다. 일본 文化年間 각본인 《玄對畫譜》이 전한다. 『江戸南畫 I - 谷文晁と鈴木芙蓉』(飯田市美術博物館, 1999).

35) 남옥, 『일관기』 권8, 갑신년 2월 29일(남옥 저, 김보경 역, 앞의 책, 434쪽).



그림4-와타나베 겐타이, 「산수도」 지본묵판, 26.4×34.5cm, 아마가사키 교육위원회

었는데, 이때 수계하라는 김유성을 중국 동진의 도석인물화가 고개지(顧愷之)에 비유하였다.³⁶⁾

따라서 김유성은 중국 역대 유명 화가들과 비견될 정도로 일본의 문인들에게 그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들과 창화할 정도로 문재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문인들이 그가 인물화를 고개지, 말 그림을 이공린에 비유하고 있어, 그가 일본에서 인물화뿐만 아니라 말 그림도 그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김유성의 인물화를 채색인물화를 그린 당나라 주방에, 김유성의 산수화를 백묘 인물화를 잘 그린 오도자에 비유하고 있는 점은 다소 이례적으로, 일본인들의 중국화에 대한 이해가 화보를 위주로 이루어진 한계로 보인다.

류유한(劉維翰, 1719-?)은 1764년 3월 7일 객관에서 정사의 군관 조동관과 화원 김유성을 만났다. 이때 류유한은 김유성에게 부탁하여 난죽(蘭竹) 그림 2장을 얻어 왔다. 그는 김유성이 등잔 밑에서 호랑이를 그리는 것을 보고 그 형상이 가히 실제처럼 웅맹하여 포효할 것 같다고 평하였다. 또한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어 그림으로 그리면 코끼리라 생각하든가 아니면 개를 면할 수 없다면서 호랑이 그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³⁷⁾

36) 郷司泰仁, 前掲書, 앞의 논문, 36-39쪽.

37) 劉維翰, 『東槎餘談』 상권, 1764년 3월 7일.



그림5-김유성, 「유해희섬도」 지본수묵, 30×44.5cm, 개인

따라서 일본에 현존하는 호랑이 그림은 통신사를 통해 다수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일본에 유전하는 김유성의 작품은 14점 정도가 알려져 있다.³⁸⁾ 김유성의 유작은 인물화·산수화·화조화로 구별되는데, 그중 도석인물화에서는 조선중기 절파화풍이, 화조도와 산수화에서는 심사정(1707-1769)의 남종화풍이 엿보인다.³⁹⁾ 김유성을 비롯한 통신사 수행회원들의 작품은 대부분 사행 노정에서 일본인들의 요청에 따라 즉흥적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아 대작보다는 소품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수묵산수화와 감필화 형식의 도석인물화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일본인들이 선호하던 주제를 위주로 제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중 작품의 판지에 일본에서 수요를 감안하여 ‘조선(朝鮮)’, ‘조선국(朝鮮國)’의 국호와 1764년 제작 시기를 밝힌 ‘갑신(甲申)’이라는 간지를 동시에 명기한 작품은 앞서 살펴본 산수관화와 『서지첩』을 포함하여

38) 일본 통신사행에서 제작된 작품과 이후 구무품으로 추정되는 작품은 표1에서 정리하였다.

39) 沈師正의 영향을 계승하여 조선후기 미법산수를 비롯하여 남종화풍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鄭歡派 진경산수화풍을 일본 화단에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洪善杓, 「十七·十八世紀의 韓·日間 繪畫交涉」, 『고고미술』 143·144(한국미술사학회, 1979), 38-39쪽; 안희준, 「韓日 繪畫關係 1500年」, 『조선통신사』(국립중앙박물관, 1986), 139-141쪽.

총 5점 정도이다.

개인소장 「유해희섬도(劉海戲蟾圖)」는 “갑신모춘조선서암사(甲申暮春朝西巖寫)”라 하여 다른 작품의 관지에서 ‘조선국’을 밝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그림5). 유해는 중국 도교의 팔선 중 한 명으로, 돈을 물어다주는 세발 금두꺼비와 함께 재신으로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화면에서 유해는 남해(南海)를 배경으로 세발 금두꺼비를 엮전 꾸러미로 희롱하고 있다. 더벅머리에 포의를 입고 왼팔을 뒤로 젖히고 오른발을 높이 올린 유해의 역동적 모습을 빠른 필선으로 묘사하여 마치 금강역사상을 연상시킨다.

최근 일본 순회전에서 소개된 순천제 일대학교 소장 「운룡도(雲龍圖)」는 화면 우측 상단에 “갑신모춘조선국서암사(甲申暮春朝鮮國西岩寫) [金有聲]”이라는 관지를 적었다(그림6). 「운룡도」는 벽사의 상징으로 자주 그려지던 소재로, 입에 여의주를 물고 구름 속을 유영하며 승천하는 용을 극적으로 묘사하였다. 용의 일부를 구름으로 가려 생략하거나 하단의 수파 표현을 생략하여 운룡을 부각시킨 점은 남송대 진용(陳容)의 용 그림에 토대를 둔 심사정 「운룡등천」의 영향이 간취되지만, 화염을 뿜으며 승천하는 용의 동세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세이켄지(淸見寺) 소장 『산수화조도 압회첩병풍(山水花鳥圖押繪帖屏風)』은 본래 6점의 작품 중 「금강산도」, 「화조도」, 「매조도」, 「낙산사도」 4점이 남아 병풍으로 꾸며졌다(그림7). 세이켄지에는 정사 조엄 이하 통신사 일행이 주지승과 시화를 수창한 유묵이 20여 점 전한다. 그중 1764년 2월 11일 통신사가 세이켄지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 주지 간레이 슈닌



그림6-김유성, 「운룡도」
1764년, 162.5×55cm,
순천제일대학교



그림7-김유성, 『산수화조도압회첩병풍』 1764년, 지본수묵담채, 125.8×52.8cm(1곡), 세이켄지

(關板主忍)이 삼사에게 전달한 서장(書狀)에서 이 작품을 그리게 된 계기를 찾을 수 있다.

조선국 삼사에 삼가 사됩니다. 담와 홍공(洪啓禧)이 말씀하시길, “청견사는 우리나라 낙산사와 방불하다”고 하였는데, 방역이 동떨어져 그 승경을 볼 수 없음을 오래도록 한탄하였습니다. 지금 다행히 통신사행을 맞으니 그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엿드려 청하오니 휘하의 화사로 하여금 그 승경을 그리도록 명하여 귀로에서 줄 것을 허락하신다면 그림에서 옛말을 비취보고 영원히 山門의 진귀한 보배로 삼겠습니다. 또한 『오산창화집(鰲山唱和集)』을 바쳐 이를 증명하오니 열람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별도로 반지(簪紙, 미농지) 6매를 부쳐 부디 바랄 따름입니다.⁴⁰⁾ 공손히 삼가 아됩니다. 세이켄지 주지 간레이 슈닌⁴¹⁾

40) 『鰲山唱和集』은 세이켄지에서 이전 통신사절과 수창한 시문집으로, 여기에 수록된 1748년 홍계희의 시문 중에 세이켄지와 낙산사를 비유한 내용이 언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지 간레이 슈닌이 작성한 『日誌』 중 寶曆 14년 갑신 2월 11일조에는 통신사 삼사에게 시를 적은 墨蹟 50장과 그림을 부탁하였는데, 이때 그림은 繪紙 8장을 사용하여 예도에 머무는 동안 그려주겠다고 전해 들었음을 기록하여 미농지 6장을 주었다는 서장의 내용과 차이를 보인다. 朝鮮通信使 文化事業會, 靜岡市 編, 『清見寺所藏 朝鮮通信使 遺物圖錄』(朝鮮通信使 文化事業會, 2006) 참조.

41) 謹稟 朝鮮國三使君左右澹窩洪公曰, 清見寺彷彿于吾國洛山寺也. 邦域隔絕, 而不能其勝, 久作斯嘆耳, 今行迎駕, 思欲之者甚切也. 伏望垂嚴命于麾下畫師, 寫其勝而許賜之於歸路, 照前言于後素, 永以鎮山門矣. 且以鰲山唱和集上奉證之也. 開卷則可知別附簪紙六枚, 其唯冀之而已. 恭候敬白, 清見寺住持 關板主忍. 「甲申年 清見寺住持 書狀」

주지 간레이 슈년이 1748년 정사 홍계회가 청견사의 풍광과 가람의 웅대함을 조선의 낙산사와 유사하다고 상찬한 것을 떠올리며, 낙산사의 화본을 귀로에 그려줄 것을 간청하였던 것이다.⁴²⁾

세이켄지 소장 유묵 중 1764년 3월 20일 회정에 통신사절과 주지의 「필담기(筆談記)」에는 주지에게 사찰에 있는 남용익의 시문을 현판으로 새겨 걸 것을 제안하며 “금강산도는 마땅히 화사에게 그리도록 대략 지시하였다(金剛山圖, 當爲師略略指示)”라고 하여 화원 김유성에게 금강산도를 그리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³⁾

제1폭 「금강산도」에는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다 그릴 수 없고, 다 쓸 수도 없다. 갑신년 조선국 서암이 그리다(金剛山皆骨, 一萬二千峰未能盡畫 亦未能盡畫, 甲申春朝鮮國西巖寫) [金有聲]”이라는 낙관이 선명하다. 김유성은 금강산의 비로봉을 비롯하여 보덕굴, 정양사 등 금강산의 주요 지표가 되는 지명을 해당 경물 위에 써넣어 지도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특히 이 그림에서는 거울 계골산을 수직으로 뺀어 내린 암봉과 미점준을 가미한 토산, 그리고 T자형 소나무 등 전형적인 정선의 진경산수화풍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을 혈망봉보다 낮게 묘사하여 실제 화본을 보고 그린 것인지는 의문이다.

정사 조엄은 후지산을 산이 부대하고 중후하여 이름과 어울리며, 일본에서 제일가는 주진산(主鎭山)이라 평가하면서도 과거 조선통신사의 시장(詩章)에서 후지산을 조선의 금강산에 자주 비유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흥미롭다.⁴⁴⁾

제2폭 「화조도」의 화면 우측 상단에 “갑신춘조선국서암사(甲申春朝鮮國西巖寫)[金有聲]”이라 낙관하였다. 화면의 하단은 이끼 낀 괴석을 부벽준과 태점을 사용하여 거칠게 묘사하였고, 몰골 담채로 묘사된 작은 꽃나무가 희미하다. 화면을 가로지르며 길게 뻗은 농묵의 나뭇가지 위에 막 비상하려는 새는 아래쪽을 응시하고 있다. 제3폭 「매조도」의

42) 조엄, 『해사일기』 4, 갑신년 2월 11일(『(國譯)海行摠載』 V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180쪽).

43) 통신사 일행은 1764년 2월 11일 처음 청견사에 방문하였다가 예도에 들른 후 3월 20일에 다시 청견사를 방문하여 남용익의 시에 차운하고, 김유성이 낙산사 화본을 그려주었다. 조엄, 『해사일기』 4, 갑신년 3월 20일(『(國譯)海行摠載』 V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234쪽)

44) 조엄, 『해사일기』 4, 갑신년 2월 12일(『(國譯)海行摠載』 V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183쪽).

표1-일본 소장 김유성 작품

작품명		재료	크기(cm)	소장처	관지	인장
유해희섬도		지본수묵	30×44,5	개인	甲申暮春朝西巖寫	金有聲印
산수도		모각판화	26,4×34,5	尼崎市教育委員會	甲申暮春朝鮮西岩爲日本邊瑛寫	仲玉, 金有聲印
운룡도		지본수묵	162,5×55,0	순천제일대학교	甲申暮春朝鮮國西岩寫	金有聲
서지첩		견본채색	24,3×21,0	개인	1764년 성대중 제시 甲申暮春朝鮮西巖寫	金有聲, 西巖
산수화조 도압회첩 병풍	금강산도	지본수묵	165,7×69,9	淸見寺	金剛山峇骨, 一萬二千峰 未能盡畫 亦未能盡畫, 甲申春朝鮮國西巖寫	金有聲
	화조도	지본수묵	165,7×69,9	淸見寺	甲申春朝鮮國西巖寫	金有聲
	매조도	지본수묵	165,7×69,9	淸見寺	甲申春朝鮮國西巖寫	金有聲
	낙산사도	지본수묵	165,7×69,9	淸見寺	洛山寺, 甲申春朝鮮國西巖寫	金有聲
산수도		견본 수묵담채	118,5×49,3	개인	敬雄(1713-1782) 1799년 제시 朝鮮西岩寫	金有聲, 西巖
이하기마도		지본담채	125,7×54,7	兩足院	慈周(1734-1801) 제시	峯朝秋, 金有聲印
농산수도		지본수묵	116,3×51,5	兩足院	大典顯常 (1719-1801) 제시	峯朝秋, 金有聲印
수노인도		지본 수묵담채	110,8×50,5	兩足院	없음	峯朝秋, 金有聲印
수노인도		견본수묵	85,5×27,0	坤月軒	朝鮮西岩寫	金有聲印
묵죽도		지본수묵	127,0×27,0	坤月軒	朝鮮西岩寫	金有聲印
난엽도		지본수묵	74,0×27,0	坤月軒	小中華西巖	有聲之印
화조도		견본담채	111,8×43,4	개인	小中華西巖	有聲之印
월하고사도		견본수묵	103,0×37,0	大坂歴史博物館	朝鮮西巖	金仲玉印

화면 좌측 상단에 “갑신춘조선국서암사(甲申春朝鮮國西巖寫)[金有聲]”이라 낙관하고 물골법과 비백으로 거칠게 뺨어 올라간 매화가지 위에 외롭게 앉은 새 한 마리의 아취를 잘 살렸다. 이들 화조화는 사생보다는 화보의 소재를 변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4쪽 「낙산사도」는 “낙산사, 갑신춘조선국서암사(洛山寺, 甲申春朝鮮國西巖寫) [金有聲]”이라는 낙관이 있다. 낙산사도는 T자형 소나무와 청록이 우거진 산을 미점준으로 묘사하였고, 첨봉의 표현 등 정선과 관련한 화법이 산견된다. 세이켄지는 고잔(鰲山)에 있는 절로 일본에서 유명하여 많은 통신사절이 이곳을 방문하였다. 이성린이 그린 「청전사」에서도 전경은 큰 바다에 접하여 시계가 트이고 후경은 녹음이 우거진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낙산사와 유사한 풍광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세이켄지 소장 「금강산도」와 「낙산사도」는 김유성이 조선의 정선과 진경산수화풍을 일본에 전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작품이다.

이상은 현존 작품 중 1764년 갑신년의 간지가 정확하게 있는 것으로 당시 사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그 밖에 일본에 전하는 김유성의 작품으로 곤월헌(坤月軒), 료소쿠인(兩足院) 소장 작품과 개인 소장 작품이 전한다.

표1에서 확인되듯 이들 작품의 관지에는 ‘갑신(甲申)’이라는 간지가 없고, 계미통신사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 “소중화서암(小中華西巖)”, “조선서암사(朝鮮西岩寫)”라 적혀 있거나 김유성의 인장이 있어 통신사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일본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⁴⁵⁾ 그 이유는 화면 위에 일본 승려들의 찬문과 제시가 사행 후에 쓴 것이며, 일부는 견본에 그려진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개인소장 「산수도」는 제작연도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화면 좌측 하단에 “조선서암사(朝鮮西岩寫)”라고 쓰여 있는 김유성의 작품이다(그림8). 화면에는 일본인 천태종 승려 요시오(敬雄, 1713-1782)가 1779년에 제시를 썼다.⁴⁶⁾

45) 왜관에서 조선화의 求買는 홍신표, 앞의 논문(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5), 136-141쪽.

46) 敬雄의 자는 昭鳳, 호는 金龍道人이다. 어려서 比叡山에 올라 천태종을 수학하고 에도 淺草의 金龍山 淺草寺에서 우거하여 평판이 높았다. 1748년경 일광산을 유람하고, 39세인 1752년 下總 正安寺의 주지가 되었다. 그는 輪王寺宮公啓 法親王에게 각별한 총애를 받아 그의 간청으로 足立郡 吉祥寺의 제25대 주지가 되었다. 敬雄은 통신사 南玉에게 시를 써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雨新庵詩集』 상권에 있다. 당시 相國寺 瞻長老의 추천으로 京都의 유학자 那波魯堂을 따라 통신사 일행을 수행하여 오사카와 에도 사이를 왕래하였다. 이후 1769년 그곳을 떠나 사방을 유람하다가 美濃安八의 善學院에서 조용히 제자를 양성하면서 70세를 일기로 여생을 마쳤다. 저서로는 『天台霞標』 3권, 『金剛經助覽』, 『老子玄覽』 등의 저서와 『雨新庵詩集』, 『祇林詩材』, 『祇林聯芳』 등의 시집이 전한다.



그림8-김유성, 「산수도」
견본담채, 118.5×49.3cm, 개인



그림9-김유성, 「이하기마도」
지본담채, 125.7×54.7cm,
료소쿠인



그림10-김유성, 「농산수도」
지본수묵, 116.3×51.5cm,
료소쿠인

鳥遍諸天聳 새는 흡사 신선처럼 높이 솟고
江連三面波 강은 삼면의 파도에 맞닿았네.
借間登臨去 올라가서 한번 물어볼까
題詩何處多 제시는 어느 곳에 많은지.

六十八翁 金龍杜多 [釋敬雄章], [昭鳳] 68세 승려 김용

요시오의 찬은 김유성이 도일한 지 15년 후로 김유성이 조선에 돌아간 후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⁴⁷⁾ 작품은 견본에 수묵담채로 묘사되었는데, 근경의 정자와 나무, 중경 강안의 사찰, 원경의 산으로 구성된 다소 정형산수의 평범한 인상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필법상 김유성 산수화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료소쿠인에 소장된 김유성의 작품은 모두 관지는 없고, 다만 화면에 주문방인으로 [峯朝秋], [金有聲印]을 찍어 비슷한 시기에 함께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기마도(李賀騎馬圖)」는 당나라 시인 이하(李賀)가 동자를 데리고 말을 타고 출유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그림9). 경직되지 않고 간략한 담채와 담묵의 필치로 그려 화면은 청정한 아취가 있다.

47) 山内長三, 「金有聲と僧・敬雄」, 『韓國文化』 34(1982. 7), 33-34쪽.

도상의 찬은 에도 중기 한시로 명성을 날린 천태종 승려 지슈(慈周, 1734-1801)의 칠언시이다. 한편 「농산수도(瀧山水圖)」는 대기와 산수의 절감 표현에서 먹의 농담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경쾌한 필치로 묘사하였다(그림10). 화면 위에 찬은 쇼코지(相國寺) 다이텐 겐조(大典顯常, 1719-1801)의 오언절구이다. 겐조는 이케노 다이가(池大雅, 1723-1776)와도 친교가 있었으며, 1781년 4월 막부에서 쓰시마 이즈하라(嚴原)의 이테이 안(以酊庵) 윤번승(輪番僧)에 임명하여 1784년까지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문서 작성을 담당한 인물이다.⁴⁸⁾

수노인(壽老人)은 장수를 관장하는 도교의 신선으로 일본에서 축수용 화제로 선호되었다. 료소쿠인 소장 지본담채의 「수노인도」는 주문방인으로 [峯朝秋, [金有聲印이 찍혀 있다(그림11). 수노인 외에도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영지와 거북이를 그리고 경사면의 배경을 묘사한 점이 곤월헌 소장본과 차이를 보인다. 크고 대담한 농묵으로 묘사한 수노인의 의습선과 생동감 있는 먹의 농담으로 김유성의 기량을 잘 보여준다.

곤월헌 소장 견본수묵의 「수노인도」는 조선의 도석인물화풍을 잘 반영한 작품으로 낙관에서 “조선서암사(朝鮮西岩寫)”라 쓰고 [金有聲印이라는 주문방인이 있다(그림12). 간결하면서도 빠른 농묵의 필선으로 작은 체구에 큰 머리를 한 전형적인 수노인의 특징을 보여준다.

오사카역사박물관 소장 「월하고사도(月下高士圖)」는 “조선서암(朝鮮西岩) [金仲玉印]이라 하여 위의 작품들과 다른 인장을 사용하였다(그림13). 고사인물도의 일종으로 달밤 오동나무와 버드나무가 마주한 가운데 동자를 옆에 세우고 바위에 기대앉은 고사(高士)를 묘사하였다. 인물의 단아한 얼굴은 담묵의 선으로 처리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인물의 복식은 간결하면서도 빠른 농묵의 필치로 묘사한 점이 인상적이다.

한편 곤월헌에 소장된 「난엽도(蘭蝶圖)」와 「묵죽도(墨竹圖)」는 김유성의 사군자도로 주목된다. 「묵죽도」는 “조선서암사(朝鮮國西岩寫) [金有聲]”의 낙관이 있으며, 화면은 청대 양주화파에서 많이 제작된 장축의 화면 구도에 길게 뻗어 오른 기운 생동한 댓잎이 인상적이다. 특히 댓잎 끝 부분을 위쪽으로 짧게 빼쳐 올린 점이 주목된다.

48) 다이텐 겐조(大典顯常)는 일명 北禪竺常으로 日本 江戸中期 京都 禪林의領袖였다. 俗姓은 今堀氏, 法名은 顯常, 字는 梅莊, 一名 淡海竺常이다. 道號는 大典, 別號는 蕉中, 東湖이며, 室號는 小雲栖, 北禪書院이다. 日本 臨濟宗 相國寺 第113世 住持로, 『葦葭堂雅集圖』의 서문을 쓴 인물이기도 하다.



그림11-「수노인도」
견본수묵, 111.8×43.4cm,
료소쿠인



그림12-「수노인도」
견본수묵, 85.5×27.0cm,
곤월헌



그림13-「월하고사도」
견본수묵, 103×37cm,
오사카역사박물관

「난접도」는 “소중화서암(小中華西巖) [有聲之印]”의 관지가 있고, 화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뻗은 석란이 시선을 확장시키고 묵난도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은 나비를 그린 점이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서 ‘소중화’는 조선을 가리키는 말로 일본에 대한 조선의 문화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그림14). 개인소장 「화조도(花鳥圖)」 역시 “소중화서암(小中華西巖) [有聲之印]”의 주문방인의 관지가 있어 「난접도」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화사하게 핀 진분홍의 작약과 태호석이 어우러진 배경의 꽃가지에 앉은 한 쌍의 새는 화보풍을 연상시키는 소재로 전체적으로 화격이 높고 고아한 이미지를 보인다(그림15).

위 작품들은 간지가 없어 계미통신사행 때 그린 작품이라 단정할 수 없으나, 화면에 선승들의 제시를 반영하거나 비교적 잘 그려진 작품들로 김유성의 대표작으로 손색이 없다. 또한 김유성의 도석인물화와 화조 및 사군자를 애호했던 일본인들의 선호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들이다.

김유성이 통신사행에서 교유한 인물 중 한일 회화교류에서 가장 주목되



그림14-「화조도」
건본담채, 111.8×43.4cm, 개인



그림15-「난접도」
지본수묵, 74.0×27.0cm, 곤월헌

는 인물이 바로 에도 중기를 대표하는 남화가 이케노 다이가이다.⁴⁹⁾ 다이가는 16세부터 문인화의 이념과 화법을 일본 문인의 선구자였던 야나기사와 기엔(柳澤淇園, 1704-1758)의 지두화에서 전수받았다.⁵⁰⁾ 1748년 26세의 다이가는 스승 기엔이 교토에서 오쓰(大津)까지 통신사 접대를 책임진 고리야마한(群山藩)의 번주 마쓰다이라 미노노카미(松平美濃守)의 중신으로 교토 혼코쿠지(本國寺)에서 조선통신사와 만났을 때 동행하였다.⁵¹⁾ 또한 1763년 겨울 화원 김유성이 그림 그리는 장면을

49) 이케노 다이가는 초년기부터 京都 宇治의 黄蘗山 萬福寺에서 黄蘗宗 승려들과 인연을 지속하였는데, 특히 중국문화의 생생한 보고인 만복사에서 중국화를 감상할 기회를 얻었다. 또한 기온 난카이(祇園南海, 1676-1751), 야나기사와 기엔 같은 초기 남화가로 부터의 영향과 함께 長岐에서 잠깐 살면서 들어오는 선박에서 적재한 목판화보류를 통해 중국 남종화를 배워 화가의 업을 시작하였다. 중국화를 일본전통의 大和繪, 琳派와 새롭게 유입된 서양화의 표현법을 취하여 독자적인 화경을 이루었다. 분방한 필선, 명쾌한 색채감각, 원근감 있는 공간 표현 등 개성을 발휘하여 당시 문인화단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박윤희, 앞의 논문, 197-221쪽.

50) 原念齋, 『先哲叢談』 卷6, 祇園南海.

51) 홍선표, 앞의 논문(한국미술연구소, 1998), 194쪽.

친견할 수 있었다.⁵²⁾ 다이가는 귀로에 김유성을 다시 만나려 했으나, 결국 만나지 못하고 후지산의 화법을 묻고 서화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삼가 아뢰입니다. 저 無畝이케노 다이가의 이름은 지난 겨울 다행히 선생님을 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총애를 입었으니 다행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그림에 대한 高論을 듣지 못해 유감스러웠으나, 바로 곁에서 선생님 회화 묘필을 보고 지극히 터득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없는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신묘한 채색은 더욱이 제 눈을 트이게 한 듯 뜻밖에 여운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다시 그림 한 폭을 보고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행 회정에 추위와 더위에 옥체는 편안하시고 잘 가고 계신지요. 저 無名은 모든 일이 분분하여 달려가 맞이하는 예를 차리지 못하고 하례하는 말로 짧은 서신을 올리니,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머리 숙여 간절히 절합니다.

다시 아뢰건대, 일본 스루가슈(駿河州)에는 후지라는 이름의 산이 있습니다. 지역 풍속은 후지산의 그림을 구하기 좋아합니다. 옛 화가들이 [후지산을 그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색 구름으로 산의 용태를 그려 녹색으로 도포하고, 정상은 세 군데 흰색을 칠하여 사철 눈이 쌓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발목 운엽하여 완전히 검은 부채살 같습니다. 가벼운 방편만 취하여 기교 삼는 이유로 따라하는 이는 실로 이 두 방식에 의거할 따름입니다. 만약 저 동원, 거연의 逸格을 따른다면, 어떤 적당한 준법을 사용해야 하나요? 저희는 어느 곳에 붓을 댈지 알 수 없습니다. 다행히 고견을 주시어 어리석은 의혹을 해소해주신다면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고 바라옵니다.

돌아가시는 길이 평온해져 해안까지 잘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선생님이 표현히 흥이 올라 小景을 그려 아사오카(淺岡, 통신사 봉행인) 씨가 저에게 전달하게 해준다면 너무 감격하여 절하고 절할 것입니다. 지난번 객관이 번잡하여 寫字官에게 감히 구청할 수 없었는데, 두 분사자관의 묵묘를 얻은 친구가 측으히 여겨 나누어 주어 상자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야인으로 배우지 못하고 부끄러워 땀만 흐르니 글로 어찌 뜻을 다 표현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잘 살피주시기를 청합니다. 머리 숙여 池無名은 절합니다. 서암 김 대선생 案下.⁵³⁾

52) 구체적인 장소는 알 수 없으나, 1763년의 일정 상 筑前州 藍浦와 長門州 赤門關 사이 노정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

53) 謹啓. 僕無名客冬幸得拜謁先生, 殊辱雅愛, 喜幸何已. 只憾不親蒙高論, 然者至得傍觀先生揮毫之妙, 復何幸乎過之哉. 神采向如射眼, 意外暗覺餘響, 更眼片幅寔難得矣. 今也文飾廻輝, 長途寒暖, 貴體安泰, 萬福萬福, 僕無名塵事紛紛, 奔迎失禮, 賀言聊奉短楮, 多罪之至, 頓首再拜. 再啓. 弊邦駿河州有山名富士, 方俗喜乞其圖畫, 古畫家有二式, 其一則設色鉤出山容, 飽塗大綠, 最巔三朵單着白粉, 蓋容貌四時積雪也. 其一則潑墨暈起刷成, 宛似摺扇

위 서신에서 이케노 다이가는 1763년 겨울 김유성이 그림 그리는 것을 가까이서 친견하고 그에 대한 감동을 절절히 전달하고, 중국 남종화풍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오대 남당의 화가 동원과 거연의 화격으로 후지산을 표현한다면 어떤 준법을 사용할 것인지 매우 간절하게 질문하였다. 또한 소경이라도 그려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는 일본 남화가 다이가의 남종산수화법에 대한 탐구 자세와 새로운 화풍에 대한 창작 의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케노 다이가의 작품에 보이는 김유성의 영향은 재미통신사행의 행렬도를 묘사한 「한객여행도(韓客興行圖)」에 잘 나타나 있다(그림16). 화권의 내용은 의장을 든 기마 인물, 국서를 봉안한 용정, 그리고 정사의 옥교(屋轎) 등 행렬의 상징적 소재만을 지두화풍으로 그렸다. 화권 말미에는 “無名(霞樵) [玉皇香案史]”라는 다이가의 낙관과 함께 “응금화사필적(凝金畫史筆迹)”이라는 관지가 있어 통신사 수행화원 김유성의 화의를 계승



그림16-이케노 다이가, 「한객여행도」 지본수묵, 36×190cm, 뉴욕시립미술관

樣, 唯取輕便, 以爲工也, 故舉者悉據此二式而已. 若彼董巨之逸格, 則的當何等皴法施之乎. 僕輩不知下手, 幸得賜高論發開愚惑, 欣躍無涯, 伏冀伏冀, 更願星槎平穩, 海岸呈碧, 時先生飄然乘興一揮毫小景, 幸得想誠, 淺岡公傳達於僕, 復更感拜多多, 想客館繁雜, 不敢強乞向寫字, 二公墨妙友生憐分贈, 篋裏頓生清輝矣. 野人不學, 慙愧汗面, 書何盡意. 先生請爲良察, 頓首頓首, 池無名拜. 西巖金大先生案下. 서신의 원문은 고바야시 유코, 「池大雅 산수표현의 추구」, 『미술사논단』 4(한국미술연구소, 1996), 273쪽; 辛基秀, 「瀬戸内の海上ページントと江戸の通信使」, 『大系 朝鮮通信使』(明石書店, 1994), 90-92쪽 참조.



그림17-이케노 다이가, 「부사산도」 지본수묵, 46,3×81,1cm, 개인



그림18-이케노 다이가, 「부사산도」 견본채색, 69,3×86,9cm, 개인

하여 기존 공필 채색으로 그리던 통신사행렬도의 관행을 벗어나 독자적인 화경을 그려내었음을 알 수 있다.⁵⁴⁾

이케노 다이가 전후 시기 또는 당대 일본 화가들이 그린 후지산은 에이세이 분코(永青文庫) 소장 전(傳) 세슈(雪舟, 1420-1506)의 작품으로 전하는 「부사

54) 타이가는 1748년 통신사행과 1764년 통신사행과 교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1748년 통신사행의 화사로는 이성린이 참여하였으므로 여기서 金畵史는 1764년 통신사행의 화원 김유성임을 알 수 있다.

청견사도(富士清見寺圖)와 요사부손(與謝蕪村, 1716-1784)의 「송림부악도(松林富嶽圖)」, 계센(月僊, 1721-1809)의 「부악도(富嶽圖)」 등에서 볼 수 있듯 산 중턱에 연무가 피어오르고 산 정상에는 사철 적설이 있어 후지산을 그릴 때 흰색으로 칠하거나 특별한 준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이가는 전국 각지를 여행하면서 경험한 자연관을 살려 일본 실경을 실감나게 묘사하여 주목받았다. 그는 26세를 시작으로 후지산을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올라 30점 이상의 후지산 그림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⁵⁾ 김유성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알 수 있듯 다이가는 당시 일본 화가들이 구름으로 산의 용태를 그리거나 운염법으로 표현하던 도식적 화법에서 벗어나 후지산을 그릴 때 동거파의 준법을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를 고민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김유성의 답신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이가의 후지산 그림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실제 후지산의 눈이 쌓인 정상과 그 일대를 감싸는 구름의 기운을 제외하고, 후지산 중턱 이하를 묘사할 때 적절한 준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즉, 지본수묵본은 주로 설산 아래 군소 산 묘사에 미점을 적용하였는데, 마치 동원의 「한림중정도」의 산 능선에 부분적으로 사용한 미점준과 근경의 소나무는 한림을 연상시키는 구도이다(그림17). 한편 건본채색본은 거연의 「충암총수도」에서 보이는 흙덩이를 뭉친 듯한 반두준(攀頭皴)을 산자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후지산을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준법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18).

2. 별화원 변박의 활동

화원 김유성과는 별도로 변박은 계미년 통신사행의 제3기선장으로 참여하였다.⁵⁶⁾ 변박(卜璞)은 동래부에서 거주하던 화원으로 계미통신사행이 있기 3년 전인 1760년 「부산진순절도」와 「동래부사순절도」를 모사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⁵⁷⁾, 시에도 능하여 정사 조엄에게 서화에

55) 고바야시 유키, 앞의 논문, 256-257쪽.

56) 그는 동래부에서 치안이나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武廳인 將官廳 千總, 別軍官廳 軍器監 官과 行首, 守堞廳 別將, 教鍊廳 등에서 활동한 경력으로 통신사행에 기선장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동철, 앞의 논문, 52-54쪽.

57) 洪名漢의 동래부순절도 서문에는 동래부 옛 순절도가 있었는데, 마침내 동래에 거주하

대한 재능을 인정받았던 것이다. 1764년(영조 40) 1월 24일 사행이 오사카 성에 머물 때, 삼기장(三騎將) 변박(卞璞)을 도훈도와 교대시켜 에도까지 수행하게 했던 것도 그가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이다. 통신사가 내일(來日)하면 일본 현지에서 필요한 그림을 모사하거나 일본인들에게 서화를 요구받았는데, 수행화원 김유성과 그림 그리는 일을 분담시키기 위해 별화원으로 대동한 것이다.

통신사행에서 변박의 활동은 주로 조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1763년(영조 39) 10월 10일 사스나에 정박할 때, 쓰시마 지도와 일본 지도 인본(印本)을 모사하였다. 1764년(영조 40) 1월 27일 오사카에서 유숙할 때, 조엄은 성 밖에서 물레[纜車]와 같은 모양의 수차 2대로 성안으로 물을 보내는 것을 보고, 별과진 허규(許圭)와 도훈도 변박을 시켜 그 제도과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여 그림으로 제작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엄은 변박을 시켜 수륙의 각 참을 지날 때 명산대천 중에 좋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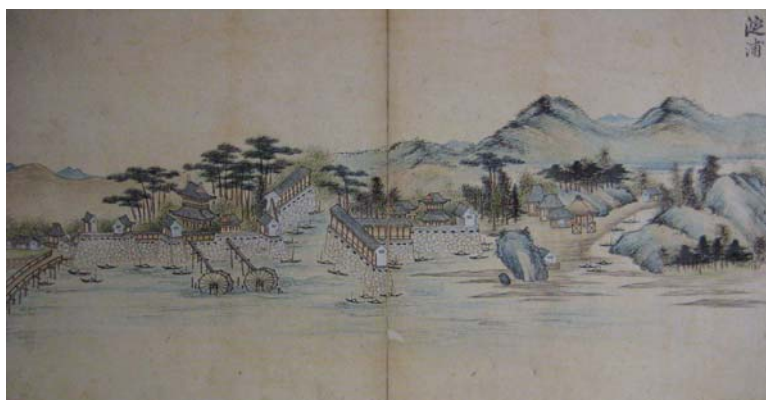


그림19-이성린, 「淀浦」, 『사로승구도』 35.2×66.7cm, 국립중앙박물관

는 변박으로 하여금 繼摹하여 새로 장황하게 하였다고 하여 원래 있던 순절도를 변박이 새로 모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83년(정조 7)에 제작한 「倭館圖」는 “歲癸卯夏寫[述齋], [卞璞]”이라는 그의 관지가 있는 작품으로 진경의 사생이 매우 정교한 작품으로 주목된다. 그 밖에 『古畫備考』의 조선서화전에 의하면, 朴東觀의 題讚이 있는 그의 산수화가 유전된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변박의 화풍과 상관성이 제기되는 작품이 동래부사의 倭使접대 광경을 그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東萊府使接倭使圖屏」 2점이다. 두 작품 모두 화면에 1813년(순조 13) 동래읍성 서쪽 성 밖에 이긴된 郷校가 선명하게 나타난 점에서 작품의 제작시기를 적어도 1813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어 그동안 정선으로 추정되던 작자 문제는 재고의 여지를 남긴다. 『忠烈祠志』 권8, 「本府殉節圖序」(민학사, 1978), 142-143쪽; 신남민, 「東萊府使接倭使圖屏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2008), 44-49쪽.

풍경을 골라 그리게 하였는데, 그 초본이 미처 완성되지 못한 것이 많아 1764년(영조 40) 6월 8일 회정 중 이키노시마(壹岐島)에서 자세히 수정하도록 하였다.⁵⁸⁾ 이때 변박이 그린 노정의 초고는 당시 통신사행의 전체 노정을 그린 이성린(李聖麟)의 『사로승구도(槎路勝區圖)』와 같은 형식의 화첩을 제작하기 위한 초고 작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19).

통신사행에서 화원이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는 막부 장군이 참관하는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다. 사자관과 화원의 서화 시재(試才)행사는 마상재가 있는 날 함께 이루어지며, 이때 노고로 받은 예단은 은자로 분배할 때, 변박도 사자관 두 명, 화원 김유성과 함께 각각 은자 5매를 분급받은 점에서 이날 시재에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⁹⁾ 이때 변박이 그림을 그린 대가로 공식 화원인 김유성과 같은 양의 은자를 분급받았다는 점은 그가 김유성과 동급의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 소재한 변박의 현존 작품에는 「송하호도(松下虎圖)」와 세이켄지에서 쓴 「제청견사용전운(題淸見寺用前韻)」이 남아 있다. 오사카시문 화재협회 소장 「송하호도」는 일본에서 벽사용으로 선호하던 화제이다(그림20). 화면 좌측으로 치우친 소나무 가지가 건필로 거칠게 뻗어 절과적 요소도 부분적으로 간취되며, 수묵으로 가볍게 호랑이의 자태를 묘사한 유려한 묵선은 변박의 영모화 수준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작품은 ‘술재(述齋)’라는 변박의 호를 적고 [述齋]라는 인장만 찍어 당시 재미통신사행에서 그린 것이라 단언할 수 없으며, 일본인들의 구무품(求買品)의 일종으로 일본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사한 사례로 현재 다카마쓰시(高松市) 호렌지(法然寺)에 소장된 「유하마도(柳下馬圖)」는 뒷면에 “세기해초하 동화술재사(歲己亥初夏東華述齋寫)”라고 부기되어 1779년에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래에서 왜관을 통해 일본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21).⁶⁰⁾

세이켄지는 1607년과 1624년 통신사의 관소로 사용되었으나, 후에는

58) 조엄, 『해사일기』 권3, 갑신년 정월 24일; 갑신년 정월 27일; 『해사일기』 권5, 갑신년 6월 8일(『國譯)海行總載』 V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155쪽, 157쪽, 300쪽).

59) 조엄, 『해사일기』, 騎射書畫時分銀記(『國譯)海行總載』 V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481쪽).

60) 김동철, 앞의 논문, 58쪽 표2 변박의 작품 목록 참조; 18세기 말이나 19세기 일본인들의 구무품으로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동래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홍선표, 「17, 18세기 한·일 회화교류의 관계성-에도시대의 조선화 열기와 그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조선 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예경, 2007), 90쪽.



그림20-변박, 「송하호도」 지본수묵, 123.3×54.5cm, 오사카시문화재협회



그림21-변박, 「유하마도」 1799년, 지본수묵, 호렌지

도중 휴식처가 되었다. 따라서 통신사와 관련된 시고 편액과 통신사 일행의 시문을 집성한 『조선국통신사시문첩(朝鮮國通信使詩文帖)』 등 통신사와 관련한 문화재가 다수 소장되었다. 1764년 통신사절이 쓴 제시와 필담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주목되는 것이 변박의 시 「제청견사용전운」이다(그림22).⁶¹⁾

이 작품의 낙관에는 “세갑신모춘 동화 술재 변박 탁지주고(歲甲申暮春 東華述齋卞璞琢之走稿)”라고 적고, [述齋] [卞璞] [琢之]라는 주문방인을 차례로 찍어 변박의 자 탁지(琢之), 호 술재(述齋)가 명확하게 기록되었다.

61) 地接三山界, 天低萬里波, 禪家元勝絕, 槎客暫經過, 詩意春花在, 羈愁夕照多, 徘徊還惜別, 惆悵更如何, 땅은 삼산 경계에 접하였고, 하늘은 만리 파도에 닿았네. 절은 원래 경치 빼어나, 사절이 잠시 지나니, 시의는 봄꽃에 있고, 나그네 근심은 석양에 포개지네. 배회하다 돌아와 석별하니, 슬픔을 또 어찌하리. 歲甲申暮春 東華 述齋 卞璞 琢之 走稿, [述齋] [卞璞] [琢之]. 『朝鮮國通信使詩文帖』, 「題淸見寺用前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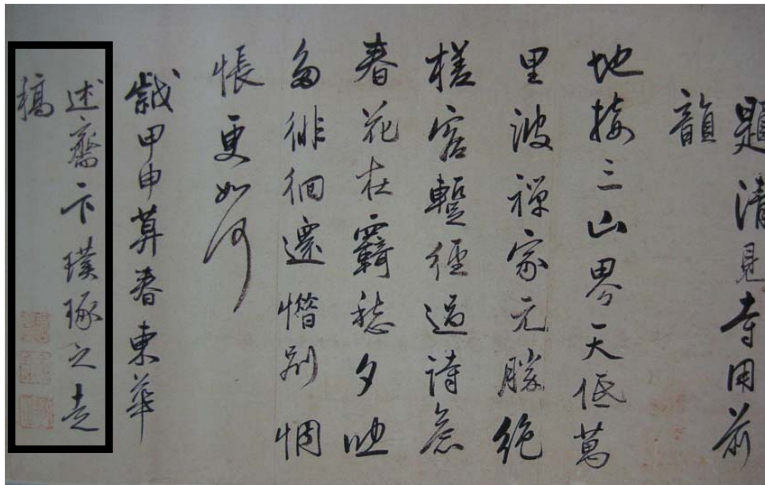


그림22-변박, 「제청견사용전운」, 『조선국통신사시문첩』 지본묵서, 33.5×54cm, 세이켄지

특히 변박이 이 제시를 과거 통신사절의 청견사 운에 따라 급하게 지었다고 했던 점에서 그의 시작(詩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술관 남옥의 『일관기(日觀記)』 사행원의 좌목에서 종사관 기선장 변박 옆에 술재라는 호를 부기하고, 그림과 시로 이름났다고 기술한 점에서도 확인된다.⁶²⁾

3. 변탁과 니야마 다이호의 『한객인상필화』

변박과 변탁(卜琢, 1742-?)은 동래에 거주하던 밀양변씨 집안의 인물로 두 사람 모두 그림에 재능이 있었으며, 각각 기선장으로 활동하였던 점에서 자칫 동일 인물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선행논고에서는 변탁과 변박을 동일 인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⁶³⁾,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조엄 『해사일기』와 남옥 『일관기』의 사행 좌목에서는 두 인물을 별개

62) 남옥, 『일관기』 권1, 「좌목」(남옥 저, 김보경 역, 앞의 책, 60쪽).

63) 李元植, 「江戸時代における朝鮮通信使の遺墨について」(『朝鮮學報』 88, 朝鮮學會, 1978); 李元植, 『조선통신사』(민음사, 1991), 252쪽; 이후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이원식 선생의 주장에 따라 변박과 변탁의 호와 자를 혼용하여 동일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9권, 「변박」 해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김동철, 앞의 논문, 50쪽; 서윤정, 앞의 논문, 28쪽.

의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동래 장교 변박은 정사 조엄이 동래부사로 있을 때 신임했던 인물로, 그 사람됨이 매우 영리하여 격군으로 데려왔다고 밝히고 있다.⁶⁴⁾ 따라서 변박은 조엄의 신임으로 사행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엄은 1763년 11월 사행 도중 사망한 제2복선장 유진원(俞進元)을 대신하여 직책을 옮긴 제2기선장 김윤하(金潤河)의 자리로 변박을 대임하게 하였다. 만약 변박과 변탁이 동일인이라면, 이미 제3기선장을 맡은 변박을 제2기선장으로 올린 상황에서 당연히 제3기선장도 대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변박은 시종일관 제3기선장의 직책을 맡았으며, 통신사행원 좌목에서도 두 인물은 별개의 직책으로 언급되어 서로 다른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⁶⁵⁾

변탁은 1764년(영조 40) 통신사행 때 오사가 객관에서 관상가인 니야마 다이호와 만났는데, 『한객인상필화』를 통해 그의 생년과 신변 정황을 추정할 수 있다(그림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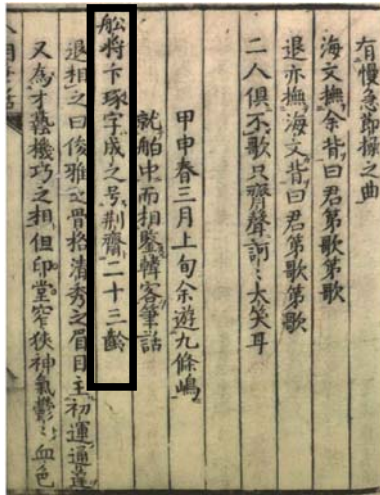


그림23-『한객인상필화』 변탁 관련 자료

1764년 3월 상순 내니야마 다이호가 쿠조시마[九條島]를 유람할 때 배를 정박하고 한객을 만나 필담하였다. 선장 변박의 자는 성지, 호는 형재, 23세이다. 내가 말하길, “준아한 골격에 청수한 미목으로 초년운이 통달하였고, 또한 재예와 기교가 짝하였습다. 양 눈썹 사이가 좁아 신기가 통하지 않고 혈색이 파리하게 막혔으니, 아마도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나이가 들어 자식이 없고, 몸은 숙질을 달고 살겠습니다.” 변탁이 말하길, “한번 자나는 길에 이와 같이 후의를 베푸니 감사하오. 내 본디 숙질이 있으니

64) 조엄, 『해사일기』 2, 계미년 11월 1일; 三使一行錄.

65) 구지현은 작자미상의 『癸未隨槎錄』의 작가를 동래 출신 무관으로 통신사선의造船과 항해와 관련한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 사행록의 기록이 오사카에서 끝나고 있는 점에서 卡琢으로 추정하고 변박과는 친족이라 주장하였다. 구지현, 『『癸未隨槎錄』에 대한 재검토-작가와 사행록으로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동방학지』(연세대 국학연구원, 2005), 267-273쪽; 홍선표, 앞의 논문(예경, 2007), 85쪽 각주 4) 참조.

이것 또한 운명이구려. 지금 부친은 살아계시고 모친은 돌아가셨소. 네 살 된 동생은 있으나, 나는 아직 자식이 없소. 혹 아들이 생기겠소?” 하고 물었다. 내가 말하길, “설사 아이가 있더라도 기르기 힘들 것입니다.” 형제가 내게 읊하며 말하길, “훗날 다시 뵈 수 있다면 이보다 큰 행운이 없겠습니다” 하였다.⁶⁶⁾

니야마 다이호의 『한객인상필화』에서는 “선장 변탁, 자 성지, 호 형재, 23세(船將卞琢字成之號荊齋二十三齡)”이라 적고 있어 1742년생이며, 자와 호를 확인할 수 있다. 변탁은 재예와 기교를 갖추었으나, 지병이 있었으며 슬하에 아들이 없는 것을 걱정하였다. 이후 3월 하순 오사카의 쿠조시마(九條島) 부두에서 니야마 다이호를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귀로까지 별탈이 없을지 묻고, 후에 그림을 그려 다메미쓰를 통해 니야마 다이호에게 보낼 것을 약속하였다.⁶⁷⁾ 여기서 자신의 그림을 니야마



그림24-변탁, 「묵죽도」 지본수묵, 개인

66) 新山退甫, 『韓客人相筆話』, 甲申春三月上旬余遊九條嶋, 就舶中而相鑒韓客筆話, 船將卞璞字成之, 號荊齋, 二十三齡, 退相之曰, 俊雅之骨格, 清秀之眉目, 主初運通達, 又爲才藝機巧之相, 但印堂窄狹, 神氣鬱鬱, 血色青滯, 恐早年剋父母, 歲欠子息, 身軀抱宿疾. 荊齋曰, 一時歷路若是之厚誼, 多謝多謝, 僕素有宿病, 此亦命耶, 今父存母沒, 而有四歲一弟, 僕尙無一子, 或有生男耶. 退曰, 縱有育兒亦難養, 荊齋揖吾曰, 後日若得更拜則, 幸莫大也.

67) 荊齋曰, 僕雖不善寫, 後當畫呈于五日所新五郎公前, 爲此笑領, 如何. 退曰, 誠爲厚誼, 多謝

다이호에게 보낼 것을 약속한 점에서 그가 그림을 잘 그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변박의 작품 중에는 “조선국형재(朝鮮國荊齋)[成之]”라는 관지가 뚜렷한 「묵죽도」가 있다(그림24).⁶⁸⁾ 앞서 변박의 관지와 비교하였을 때, 짧게 끊어지는 듯한 필체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유덕장의 묵죽도 영향이 간취되는 통죽과 새죽의 가지는 담묵으로 부드럽게 처리하고 댓잎은 빠른 농묵으로 처리하여 대조를 이룬다. 하단의 아래쪽에서 위로 조밀하게 뻗은 댓잎은 화면에서 안정감을 주며, 위쪽 가지에서 강한 필획으로 뻗어 내린 댓잎은 생동감을 준다. 변박이 재예를 갖추었다고 했던 니야마 다이호의 말처럼 그의 화격을 대변하는 작품임에 틀림없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1763년 계미통신사행에 동행한 화원의 역할과 그들이 일본에서 그려 오거나 남긴 작품이 한일 양국 간 문화사적 교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수행화원 김유성의 현존 작품을 분석하고, 별화원 변박과 동일인으로 간주되던 변박에 대한 일본 사료와 작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들 상호 관계를 규명하려 하였다.

일본에 현존하는 화원 김유성의 작품 중 계미통신사행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 작품이 총 5점 정도이다. 이들은 막부 쇼군을 비롯한 통신사 접대와 관련된 다이묘 및 고관들이 초대한 장소, 통신사의 거점이 되는 객관과 세이켄지와 같은 도중 휴식처, 그리고 연로에서 주로 제작되었다.

김유성의 작품 중에는 제작시기를 명기하지 않은 작품이 많아 계미통신사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 “소중화서암(小中華西巖)”, “조선서암사(朝鮮西岩寫)”라 적혀 있거나 김유성의 인장 또는 사행 이후 접반승이 쓴 제시가 있는 점과 견본에 그려진

多謝, 永爲家珍. 新山退甫, 『韓客人相筆話』.

68) 이 그림은 이원식에 의해 변박의 작품으로 소개된 이래 지금까지 변박의 작품으로 알려져왔다.

점을 감안할 때 구무품으로 일본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화목은 수묵이나 담채 위주의 화조도와 도석인물화, 산수화가 대부분으로 일본에서 김유성 작품의 선호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일본 남화가 이케노 다이가가 김유성 화의를 따라 그린 지두화풍의 행렬도권 「한객여행도」는 일본에서 제작된 다른 행렬도권에 비해 매우 이례적인 예이며, 이케노 다이가가 김유성에게 보낸 서신과 함께 그들의 교유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예로 주목되는 작품이다. 18세기 한일 양국 화단에서 두 화가의 위치를 고려할 때, 개인적인 교유 차원을 넘어 한일 회화 교류사의 흐름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별화원 변박과 변탁은 동래부 소속 인물들로 조엄의 신임으로 기선장에 발탁되었으나, 그들의 서화에 대한 재예가 이들의 선발 기준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변박의 경우 오사카에 남아야 할 기선장의 직분임에도 도훈도와 교대시켜 에도까지 입성할 수 있었다. 그는 막부 장군이 참관하는 자리에서 그림을 그려 수행화원 김유성과 같은 포상을 받았으며, 정사 조엄으로부터 요구되는 회사(繪事)를 맡아 수행하였다. 변탁은 기선장으로 오사카에서 머물렀으며, 현존 작품으로는 「묵죽도」가 있다.

최근까지도 선행 연구에서 별화원 변박과 변탁을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본문에서는 『한객인상필화』에서 니야마 다이호가 적은 필담을 통해 적은 변탁의 인상과 신상을 자세히 분석하였고, 남옥과 조엄의 사행록에서 통신사 구성원의 좌목, 그리고 세이켄지에 소장된 변박의 차운시를 분석하여 이들이 서로 다른 호와 자를 가진 별개의 인물임을 분명히 하였다.

참 고 문 헌

南玉, 『日觀記』.

新山退甫, 『韓客人相筆話』.

元中舉, 『乘槎錄』.

趙職, 『海槎日記』; 『(國譯)海行摠載』, 민족문화추진회, 1974.

고바야시 유코, 「池大雅 산수표현의 추구」, 『미술사논단』 4, 한국미술연구소, 1996.

구지현, 「『癸未隨槎錄』에 대한 재검토-작가와 사행록으로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5.

김동철, 「왜관도를 그린 변박의 대일교류 활동과 작품들」, 『한일관계사연구』 19, 한일관계사학회, 2003.

김영남, 「기무라 겐카도(木村兼葎堂, 1736-1802)의 繪畫 研究」, 『미술사학』 21,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7.

김의환, 「趙職이 본 18世紀 後半期の 日本社會와 朝日關係」, 『玄岩 申國柱博士華甲紀念韓國學論叢』, 동국대학교출판부, 1985.

남옥 저, 김보경 역, 『일관가-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2006.

박윤희, 「이케노타이가의 문인화에 대한 이해와 실제」, 『미술사학연구』 255, 한국미술학회, 2007.

박진한, 「享保・寛政改革期 江戸幕府의 검약정책」, 『동방학지』 13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서윤정, 「1764년 通信使의 繪畫活動과 그 交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신남민, 「東萊府使接倭使圖屏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8.

안취준, 「韓日 繪畫關係 1500年」, 『조선통신사』, 국립중앙박물관, 1986.

원중거 저, 김경숙 역, 『승사록-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정은주, 「正德元年(1711) 조선통신사행렬회권 연구」, 『미술사논단』 23, 한국미술연구소, 2006.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靜岡市 共編, 『세이켄지 소장 조선통신사 유물도록』. 2006.

하우봉,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 研究』. 一志社, 1989.

홍선표, 「十七・十八世紀의 韓・日間 繪畫交涉」, 『고고미술』 143・144, 한국미술사학회, 1979.

_____,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회화활동」, 『미술사논단』 6, 한국미술연구소, 1998.

_____, 「에도시대의 조선화 열기-일본통신사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8, 이화

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5.

_____, 「17, 18세기 한·일 회화교류의 관계성-에도시대의 조선화 열기와 그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조선 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7.

郷司泰仁, 「寶曆度朝鮮通信使の畫員金有聲について」. 『青丘學術論集』 23,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2003.

辛基秀, 「瀬戸内の海上ページェントと江戸の通信使」. 『大系 朝鮮通信使』, 明石書店, 1994.

仲尾 宏, 「寶曆度通信使とその時代」. 『大系 朝鮮通信使』, 明石書店, 1994.

貫井正之・毛井正勝・小出裕, 「江戸時代 朝鮮通信使の基礎的研究-特に東海地方(岐阜県・愛知県・静岡県)を中心にして」. 『青丘學術論集』 18,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2001.

藤塚 鄰, 『清朝文化の東傳研究』. 國書刊行會, 1975.

山内長三, 「金有聲と僧・敬雄」. 『韓國文化』 34, 1982. 7.

吉田宏志, 「朝鮮通信使に隨行して來日した畫員, 金有聲について」. 『朝鮮通信使展: 江戸時代の善隣友好』, 常葉美術館, 2004.

『朝鮮王朝の繪畫と日本-宗達, 大雅, 若冲も學んだ隣國の美』, 讀賣新聞大阪本社, 2008.

Burglind Jungmann, Ike Taiga's Circle and Korean Embassies, *Painters as Envoy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국 문 요 약

계미통신사행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유 일본인들의 창화 문집이 많이 남아 있어 당시 양국 간 문화교유가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화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본문에서는 계미통신사행과 관련하여 일본에 소장된 계미통신사절의 기록 및 일본 현존 작품을 근거로 계미통신사행에 동행한 화원 김유성(1725-1775 이후)과 별화원 변박, 그리고 변탁의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케노 다이가가 그린 조선통신사행렬도 「한객여행도」와 김유성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1763년 계미통신사행에서 화원 김유성과 일본 남화의 대가 이케노 다이가와의 교유 상황과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교유관계를 파악하였다.

특히 최근까지도 선행 연구에서 별화원 변박과 변탁을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 글에서는 통신사행의 좌목과 문집에서 사용된 이들의 자와 호의 차이에서 별개 인물임을 명확히 하였다. 동래부에 소속 인물들로 조엄의 신임으로 기선장에 발탁되었으나, 그들의 서화에 대한 재예가 이들의 선발기준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변박의 경우는 그림에 능하여 막부 장군이 참관하는 자리에서 그림을 그려 수행화원 김유성과 같은 포상을 받았으며, 정사 조엄으로부터 요구되는 회사(繪事)를 맡아 수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변박이 에도까지 입성하여 세이켄지에 남긴 차운시와 관상가 니야마 다이호가 변탁을 만나 그에 대한 자세한 인상과 신상을 소개한 『한객인상필화』의 내용을 자세히 예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계미통신사행에서 문화 전파의 한축인 화원들의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동래 화원 변박과 변탁에 대한 학계의 혼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투고일 2011. 3. 22.

수정일 2011. 5. 2.

게재 확정일 2011. 5. 11.

주제어(keyword) 통신사(Tongsinsa), 화원(Painter), 김유성(Gim Yuseong), 변박(Byeon Bak), 변탁(Byeon Tak), 이케노 다이가(Ikeno Taiga)